

# 정부, 합성수지 가격인상 자제하라!

## 지경부, 원자재 가격인상 자제 요청 ... 대기업은 납품가격 현실화 촉구

정부가 합성수지를 포함한 소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지식경제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주력산업분야 대기업 15사를 초청해 중소기업 납품가격 조정 관련기업 간담회를 열고 납품가격 현실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소재 공급기업들에게는 원료 공급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 납품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중소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소재기업은 원료 공급가격 인상 자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철스크랩(고철) 등 주요 원자재의 사재기행위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원자재 구입비용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하도급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 경기회복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납품가격을 현실화해 달라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들도 중소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4월 철 스크랩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23.1%, 합성수지와 폐지 가격도 각각 22.3%, 56.3% 올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03>